

반갑다 프로야구, 너만 기다렸어!



시범경기 이것이 키포인트



선동열 감독

KIA 불안한 불펜 완성할까?





윤석민 이용규 서재웅

WBC 탈락 자존심 구긴 '태극 호랑이' 명예회복은?



김경문 감독

NC 1군 신고식 전력은 어느정도?





김응용 감독 영경엽감독 김시진감독

한화·넥센·롯데 바뀐 사령탑 팀 분위기 쇄신할까

시범경기 내일 개막... KIA 'V11' 마지막 테스트

오후 1시 광주 무등경기장서 한화와 첫 대결

KIA 타이거즈의 우승공식 완성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가 이뤄진다. 2013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9일 개막한다.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탐금질을 이어온 KIA 타이거즈는 9일 오후 1시 무등경기장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시범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시범경기는 팀간 2차전으로 진행되며 팀당 12경기씩 총 54경기가 열린다. 한화와 첫 대결을 갖는 KIA는 12·13일 SK, 16·17일 두산과 안방에서 만난다. 이후 6경기는 원정경기로 치러진다. 19·20일 창원에서 NC와 만나며 이후 포항과 대구를 찾아가 각각 LG(21·22일), 삼성(23·24일)을 상대로 시즌 점검에 나선다. 이번 시범경기에서 KIA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불펜 완성'이다. KIA는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연습경기에서 불펜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했다. 좌완 임준섭·손동욱 우완 고영창·이효상 등 신예 선수들의 가능성 엿보기와 박지훈·박경태·진해수 등의 컨디션 점검이 이뤄졌다. 신인 선수들 위주로 진행된 불펜 테스트 결과는 3승1무9패. 결과만으

로는 실패에 가깝지만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 그만큼 시범경기에서는 가능성을 넘어 실천 활을 여부를 살피는 마지막 테스트가 진행된다. 선동열 감독은 "선발과 마무리를 정해졌다. 중간 계투진 구성이 가장 큰 과제다. 시범경기를 통해 마운드 구성을 마치고 마무리 캠프부터 스프링 캠프까지 훈련했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해 베스트 전력으로 시즌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3 시범경기는 확 달라진 덕아웃 모습이 팬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 스토브리그는 사령탑의 대이동으로 뜨거웠다. 김응용 전 삼성 라이온즈 사장이 한화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고, 넥센의 영경엽 감독도 사령탑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넥센을 이끌었던 김시진 감독은 롯데로 둥지를 옮겨 새로운 야구를 준비하고 있다. NC의 전력도 엿볼 수 있다. 2군에서 칼을 갈아온 NC는 올 시즌 1군 신고식을 치른다. 신생팀이지만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했다. 최근 2년간 신인 드래프트에서 신생팀 프리미엄을

2013 KIA 시범경기 일정 (전 경기 시작시간 오후 1시)

09일(토)	KIA vs 한화	광주
10일(일)	"	"
12일(화)	KIA vs SK	"
13일(수)	"	"
16일(토)	KIA vs 두산	"
17일(일)	"	"
19일(화)	KIA vs NC	창원
20일(수)	"	"
21일(목)	KIA vs LG	포항
22일(금)	"	"
23일(토)	KIA vs 삼성	대구
24일(일)	"	"

받아 알찬 선수영입이 이뤄졌다. 특별 지명으로 이승호·송신영·고창성 등 마운드 전력을 강화했고 조형훈·모창민·김태근 등 경험있는 야수진도 영입했다. 또 FA(자유계약)으로 베테랑 내야수 이현곤·이호준이 가세한데다 신생팀 프리미엄으로 3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돌풍을 예고한다. WBC(월드베이스볼클래스)에서 자존심을 구긴 태극전사들도 시범경기 중반 명예회복을 위한 위밍업에 들어가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봅슬레이 사상 첫 금메달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7일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2013 아메리카컵 7차대회 2인승에서 스타트를 나가고 있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한 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 제공)

원윤중·전정린 아메리카컵 7차 대회... 올림픽 출전 기대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사상 첫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파일럿 원윤중(28)과 브레이크맨 전정린(24)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7일(한국시간)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2013 아메리카컵 7차 대회 2인승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53초91의

기록으로 19개팀중 1위에 올랐다. 원윤중-전정린은 제이크 피터슨-다카리 콘젤라(미국·1분54초24)와 코디 베스큐-마이클 매커티(미국·1분54초48)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 봅슬레이가 국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2010년과 2011년 아메리

카컵에서 세 차례 은메달을 목에 건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대표팀은 동시에 이번 대회의 성적으로 2013~2014시즌 월드컵에 남자부 2팀, 여자부 1팀을 내보낼 자격을 얻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 전망을 밝게 했다. 월드컵은 대륙별보다 성적에 따라 부여하는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대회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원윤중-전정린은 이날 두 차례 레이스에서 모두 첫 50m 구간에만 2위 기록을 냈을 뿐, 이후 결승선까지 구간별 기록에서 모두 가장 빠른 성적을 냈다. 대표팀은 8일 열리는 8차 대회 2인승에 출전해 2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최재우 모굴 5위...한국선수 역대 최고

세계선수권 결선 23.94점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기대주 최재우(19·한체대)가 국제스키연맹(FIS) 세계선수권대회 모굴(mogul)에서 한국선수로는 역대 최고 성적인 5위를 기록했다. 최재우는 7일(한국시간) 노르웨이 보스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자

모굴 2차 결선에서 23.94점을 얻어 5위에 올랐다. 한국 스키 선수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위안에 든 것은 최재우가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2009년 한국에서 열린 스노보드 세계선수권에서 권대원(34)이 빅에어 부문 18위를 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연합뉴스

광주 출발 왕복 셔틀 운행 안내

광주 - 완도 - 제주항 - 완도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00 광천 터미널 내
 셔틀버스도착 : 완도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 됨
 쾌 속 선 : 완도 출발 09:00~10:40
 제주 출발 17:50~19:30
 소 요 시 간 : 1시간 40분
 쾌속선+셔틀버스요금
 편도 37,000원(한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 단체는 문의 후 확정, 완-제, 제-완 편도는 문의바람

광주 - 목포 - 제주항 - 목포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40분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e-편한세상 앞
 셔틀버스도착 : 목포 국제항 여객선 터미널 앞
 쾌 속 선 : 목포 출발 09:00~13:20
 제주 출발 17:00~21:20
 소 요 시 간 : 4시간 20분
 크루즈+셔틀버스요금
 편도 30,000원(한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 단체 불가, 합인승 및 합인 대상자들 문의바람

첫날부터 짝~찬 신나는 제주 여행 완도 쾌속선 169,000원~
 광주 출도착 제주도 2박 3일 매일 출발 목포 크루즈 155,000원~

-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트리아트, 얼음박물관, 5D영상관
- 2일자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석부자테마파크, 올레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 3일자 교래리 삼나무숲길,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 허브동산, 에코랜드 또는 선녀와 나무꾼, 해녀촌, 친환경농수산물매장

포함 사항:광주-완도, 목포 왕복셔틀버스(신착신왕복선박료,TAX, 일정표내에 모든 관광지 식사완도-중식3회조식2회/목포-중식2회조식2회) 속삭이발호텔 5~6인실)
 불포함사항:기타드림(1인 10,000원)자유식당완도터미널-완도항 승승
 현지 직불관광: 산방산 유람선(17,500원)몽골리안비행소 등(15,000원) 추가비용:금요일출발 2만원 토요일출발 1만원 2인실이용시 3만원